

#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

## 1. 편제와 시수

### 가. 교육과정 총론

#### 제안의 필요성

- 초·중·고 세 개의 학교급이 하나의 문서에 구성되어 있어 가독성과 실용성이 떨어짐
- 초등교사들에게 전체 학교급을 다루는 총론보다 초등학교 총론 해설서의 활용 비율이 높아, 총론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

#### 전북지역 초등교사들의 의견

- 설문조사 응답자의 93.4%가 국가교육과정 총론 학교급별 분리에 찬성하고 있음

####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안

- **교육과정 총론을 학교급별로 분리**
  - 중복되는 내용을 덜어내고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론을 초·중·고로 분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

#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

## 1. 편제와 시수

### 나. 교육과정 편제

#### 제안의 필요성

- ‘교육과정 재구성’ 차원을 넘어 ‘교사교육과정 개발’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‘교사교육과정’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편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
- 전라북도교육청,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편제를 제안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 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

#### 전북지역 초등교사들의 의견

- 설문조사 응답자의 62%가 ‘학교교과(목)’ 개설을 희망하고 있음

####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의견

-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은 ‘학교에 교과 개설권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편제가 구성해야 한다’, ‘현재의 편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학교교과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’ 두 가지로 나타남
- 편제 신설에 관한 생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‘학교교과’ 또는 ‘학교교과(목)’을 제안하는 의견은 동일하게 나타남

####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안

- **교육과정 편제를 ‘교과’, ‘학교교과’, ‘특별활동’ 3대 편제로 재조직**
  - 학교 및 교사 차원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에 ‘학교교과(school subject)’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이를 교육과정 편제에 추가하여 공식적·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
  - 창의적 체험활동은 ‘특별활동’ 관련 교육과정만 남기고 교사 자율의 영역은 ‘학교교과’에 편입하는 것이 효율적임. 수업식, 종업식, 졸업식과 같은 일회성 행사나 동아리 활동, 자치활동 등은 특별활동으로 편제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자연스럽게 편만한 방식임
  - 교사가 만든 교육과정을 ‘활동’이나 ‘교육과정 재구성’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‘교사교육과정 개발’ 차원으로 그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

#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

## 1. 편제와 시수

### 다. 시수

#### 제안의 필요성

- 성취기준 이수에 필요한 시간은 학교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에도 국가교육과정의 고정된 시간 배당 기준은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틀이 되고 있음
- 20% 시수 증감제가 그나마 교사 자율성의 통로가 되고 있으나 다양한 학생의 성취를 돕고 활발한 통합수업 개발을 위해 시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함

#### 전북지역 초등교사들의 의견

- 설문조사 응답자의 70.7%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고정된 시간 배당 기준이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응답함
- 설문조사 응답자의 78.8%는 수업 시수 시간 배당 기준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함

####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의견

- 시수에 대한 자율적 권한 배분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20% 시수 증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과별 최소시수를 제시하여 나머지 시간에 대해 교사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.
- 시수 증감을 학기 초에 미리 확정해야 하는 외부적 요인 개선도 필요함
- 교사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특정 시수를 할당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의무화해야 함

####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안

- 교과별 '최소 필수시수'만 제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단위학교에 자율성 부여
  -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별 '기준시수'를 최소 필수시수'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
  - 총시수 안에서 교사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배당 기준 마련

#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

## 2. 교과

### 가. 성취기준

#### 제안의 필요성

-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활용이 실제 교실 수업의 모습을 결정함
- 국가 주도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육내용의 획일화는 지역의 특수성과 단위 학교의 요구 및 교육 분야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음

#### 전북지역 초등교사들의 의견

- 성취기준의 수와 양이 많아 학습부담이 크고, 지역과 학교(학생)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
- 설문조사 응답자의 78.9%가 성취기준의 선택에 대한 재량권 확대 요구

####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의견

-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80%가 교사에게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정, 삭제,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답함
- 나머지 20%의 전문가도 국가 수준 성취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개발되어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

####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안

- **교과별 '최소 성취기준'을 마련하여 교사의 자율성 확대**
  - 핵심 내용 중심의 '최소 성취기준'만을 제시,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
  - 예를 들어 6:4의 비율로 국가와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권한 배분
- **교과별 성취기준 진술 수준의 편차 조정**
  - 교과별 최소 학습 내용 중심으로 성취기준 진술 수준을 비슷한 위계로 제시
- **필수 성취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설을 '부록'으로 제시**
  -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높임
- **성취기준 개발 단계부터 교사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 마련**
  - 교사의 의견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온라인 소통 창구 필요
  - 지역교육청 별 자문이나 협의 기구 필요

#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

## 2. 교과

### 나. 교과서

#### 제안의 필요성

- 국가주도형인 현 교과용도서 발행체제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다양화된 수업을 지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됨
- 보다 완화된 교과용도서 체제를 지향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실현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#### 전북지역 초등교사들의 의견

- 설문조사 응답자의 67.7%가 교과서 및 교재 선택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함

####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의견

- ‘현재의 검·인정도서 발행체제를 자유발행제에 가깝게 완화한다.’와 ‘교과용도서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확대한다.’, ‘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령을 현실적으로 개정한다.’는 세 가지 의견이 주를 이루었음
- 현장의 달라진 풍토를 반영하고 다양한 자료 사용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법률(초·중등교육법 제29조) 개정 필요

####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안

- ‘포트폴리오형 교과서’, ‘모듈형 교과서’, ‘만들어가는 교과서’ 등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 도입
  -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수업이 가능한 현실 반영
  -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완성형 교과서보다 데이터,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가 효율성이 높을 수 있음
- 자유발행제의 취지에 맞는 교과서 정책 시행 및 초등학교급까지 확대
  - 최소한의 공통심사기준에 따른 학교장-운영위원회 심사 통과제를 통해 교과서 자유발행제 및 교육과정 자율화 의미를 살림
- 교과용도서와 수업 자료의 자유로운 발행 및 선택의 권한을 상위 법령인 초·중등교육법에 명시

#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

## 3. 창의적 체험활동

### 제안의 필요성

-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와 학교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출발한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통제하고 있음
- 범교과 학습시수, 법령이나 유관기관 요청 교육 시간, 고정영역의 시수 배정 과다 및 초등 단계에 맞지 않은 영역 편성으로 교사의 실질적 자율권이 구현되지 못하며,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
### 전북지역 초등교사들의 의견

- 설문조사 응답자의 78%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교육이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, 교과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을 최소화하고 지역 및 학교에 교육과정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함

###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의견

-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 확대, 각종 법령과 관련 지침 최소화 및 간소화에는 모두 동의함
- 자율성 확대 방안으로 초등 수준에 맞게 영역의 수와 내용 다르게 설정, 영역 통합으로 학교 선택권 확장 등이 제안되었음

###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안

- **창의적 체험활동을 ‘특별활동’과 ‘학교교과’로 분리, 교사의 자율권 확대**
  - 특별활동(행사, 자치, 동아리 등)의 세부 영역 예시는 제시, 학교와 교사에게 영역에 대한 자율권 일임
- **외부에서 주어지는 범교과 학습 주제 및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른 교육 최소화 위한 법령 및 지침 정비 필요**
- **초등에 맞는 세부영역으로 재정비 및 제안된 영역이 예시임을 명시하여 교사의 영역 선택 권한 범위 명확하게 제시**
  - 기록만을 위한 형식적인 봉사활동 및 진로활동 등의 삭제

#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

## 4. 기록

### □ 제안의 필요성

- 상당수의 교사들이 현행 정보공시 제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이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인식하고 있음
- 현행 NEIS와 정보공시 제도에 관한 현장 교사들과 교육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NEIS와 정보공시 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

### □ 전북지역 초등교사들의 의견

- 설문 응답자의 77%가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및 NEIS가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있고, 응답자 중 81.7%는 NEIS에 관한 교사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
- 설문 응답자의 77.9%가 NEIS를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
- 설문 응답자의 85%가 정보공시의 교과진도 및 평가계획이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있고, 응답자 중 75.3%가 정보공시 시기, 내용, 횟수 등에서 교사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
- 설문 응답자의 73.9%가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

### □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의견

-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자료 제공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' 위해 '초등과 중등의 NEIS 시스템 분리'와 'NEIS 입력 내용의 간소화'가 필요하다고 생각함
- '정보공시 수정 절차의 간소화'와 '정보공시 시스템 개선'이 필요하며 정보공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확대를 제안함
- 창의적 체험활동의 누가기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공감함

### □ 국가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안

- NEIS 입력 메뉴의 초·중등 분리, 교사에게 메뉴 수정 권한 부여
  - 초·중등 각각에 적합한 입력 항목과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
  - 교사에게 NEIS 메뉴 수정 권한이 필요함
- 정보공시 수정 절차 간소화 및 교사의 권한 확대
  - 정보공시를 위한 명확한 기준만 제시하고 정보공시의 시기, 내용, 방법 등은 단위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.
-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이 '증명'의 장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'지원'의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의무적 지침 완화